

광주시, 미래차 산단·반도체 단지 유치 안간힘

설 연휴 이후 국가산단 발표
반도체 특화단지는 상반기 지정
두개 모두 대통령 공약 사업
미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해야

광주시가 '미래차 국가산단'과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 지역 미래를 견인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역 내에선 이들 사업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선공약과 맞닿아 있고, 특히 미래차 국가산단은 전국 유일의 완성차 공장 2곳 보유 등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민선 8기 광주·전남이 공동 핵심 사업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대응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가 특화단지 지정 평가 항목을 사실상 반도체 앵커 기업(선도기업)이 없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를 배제하고, 기존 반도체 공장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만 유리하도록 구성했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설 연휴 이후 이르면 2월 내에 신규 국가산단의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계획을 일부 연기했다. 전국 19개 자치단체가 국가산단 공모 신청을 했으며, 국토부는 최대 10곳 정도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0월 국토부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국토부 현장실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광주를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인데다, 국토부에서도 광주를 대표적인 미래차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지로 지목함에 따라 정치적 외풍 등이 없다면 '국가산단' 유치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는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아차와 현대차 등 완성차 공장 2곳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이 지역 제조업의 4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미 지역 산단 분양률이 100%로 포화 상태라는 점 등도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를 돕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올 상반기 내 발표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해서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은 RE100 실현(신재생 에너지 100%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으로, 즉시 공급 가능한 부지와 용수·물류망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지정 평가 항목이



설 앞둔 말바우시장 '복직' 설명절을 앞둔 17일 오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이 명절에 쓸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반도체 기업이 집중된 수도권에만 유리하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밝힌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주요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지역 또는 기업 중 전문인력·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및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 법적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및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으로, 국내외 (반도체)기업 유치 및 선도(앵커)기업 유치 계획이 핵심 요건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 안배 항목은 아예 제외됐다.

이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려면 비수도권 지역에선 수도권만을 배려한 정책이라며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묻는 질문에 "(정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가장 기본은 앵커(선도)기업인데, 앵커기업이 없는 광주·전남에선 최대 약점"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예비군 동원훈련 3월부터 2박3일 정상 시행

현역·예비군 통합훈련 재개
숙영 밀집도 50~70% 수준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이 올해부터 정상 시행된다.

국방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2023년 예비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2020~2021년 소집훈련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는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더한 혼합형 훈련을 시행하는 등 과도기를 거쳤다.

올해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했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을 재개하는 등 전시 작전계획 시행 능력을 구비하고 임무 수행에 태세를 향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 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 부대 또는 훈련장에서 2박 3일간 시행한다.

부대 중·장식 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 실전성 향상을 추진한다.

기본훈련은 5~6년 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 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 전투기술 숙달에 초점을 맞춘다.

5~6년 차 예비군이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 전시 임무에 숙달하는 작계훈련도 연 2회 실시한다.

군은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비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마스크는 실내에서 착용하고 실외 훈련에서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되 향후 관련 정부 지침이 변경되면 재판단하기로 했다.

동원훈련은 이런 방침에 더해 입소 전 전원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도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시 추가검사를 한다.

/연합뉴스

설 연휴 2648만명 대이동
귀경, 서울~광주 7시간40분
귀경, 광주~서울 6시간35분
고속도로 통행료 나흘간 면제

올 설 명절 연휴 기간(21~24일) 가운데 귀성은 설 전날인 오는 21일 오전, 귀경은 설 다음달인 23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귀성·귀경객과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과 설 다음날이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지난해보다 연휴가 하루 짧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동인구는 2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설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264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2648만명, 하루 평균 53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91.7%가 승용차, 3.8%가 버스, 3.0%가 철도, 1.1%가 항공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설보다 연휴 기간이 하루 짧지만 일상 회복에 따라 이동 인원은 2.1% 증가하고 일평균 이동 인원은 22.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별교통대책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는 약 519만대로 추정됐는데 이는 작년 대비 23.9%, 작년 12월 주말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연휴 기간 교통체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광주 7시간40분, 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부산 8시간40분 등이다. 귀경은 광주~서울 6시간35분, 목포~서울 6시간55분 등이다.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나흘간 면제된다.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밤 12시 사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 새해 인터뷰 ▶3면
5·18단체, 특전사 단체와 '회해의 물꼬' ▶7면
광주FC 이순민 "패배 막는 선수 되겠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바이탈뷰티

신체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살려주는 홍삼의 명작

명작수

명작수
RED GINSENG EXTRACT
AMPOULE
활성의 생명력과
명작 기운을 담은
홍삼의 명작
20g
바이탈뷰티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및 판매원 :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